

■ 총무원 재무부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약사사·사자암 현장

종단 수익구조 다변화 ‘최선’

분담금에 의존하는 종단 재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하는 수익구조 다변화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성월스님)는 제33대 집행부가 수립한 종단 발전 4개년 계획의 11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종단 재정구조의 합리화’와 25대 주요과제인 ‘종단 재정의 다변화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했다.

재향군인회와 ‘상조업무 협약’ 체결 후
‘불자와 사찰에 도움 되는 활동’ 전개
업체 “좋은 혜택 갈 수 있도록 노력”

지난 3월 제18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사찰부동산관리법과 대한민국제향군인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총무원 재무부는 지난 7월 재향군인회와 ‘장례(상조)업무 협약’ 체결 후 회원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원 가입 사업은 해당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지만, 종단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재무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는 종단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에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총무원 재무부는 음력 초하루에 직접 사찰을 방문해 캠페인 및 상조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 9월8일 서울 강서구 약사

사에 이어 10월8일에는 서울 동작구 사자암의 초하루 법회에 참석한 재정국장 각운스님은 신도들에게 종단과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직접 설명했다. 각운스님은 약사사와 사자암 법회에서 “그 동안 상조서비스로 인한 불자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종단이 나서서 믿을 수 있는 상조서비스를 점검하고, 검토한 결과 불자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국장 스님의 설명과 재향군인회 직원들의 상담 결과 약사사와 사자암에서는 불자들이 동참을 약속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불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사찰과 종단에도 재정적 도움이 되는 ‘상조사업’이라는 점에서 주지 스님과 불자



총무원 재정국장 각운스님과 (주)재향군인회 상조회 직원들이 지난 8일 초하루 법회가 열린 서울 사자암에서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법회가 끝난 후 신도들에게 캠페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들의 호응이 컸다.

약사사 주지 태연스님과 사자암 주지 해초스님은 “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신뢰할 수 있다”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흥보대행업체 (주)모노코롬의 김태완 사장은 “무엇보다 종단에서 추천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도들의 관심이 컸다”면서 “안내문 등을 발송해 보다 많은 불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지난 7월15일 (주)재향군인회 상조회와 ‘장례(상조)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종단에서 인정한 ‘유일한 상조사업’이 됐다. 협약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은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승려노후복지 기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불자들은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종단에도 보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예상된다. (주)재향군인회 상조회는 대한민국제향군인회가 100%로 출자해 2005년 12월 설립한 회사이다. 상조관련 199억 원의 자산과 고객환급금의무액 154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며, 국정감사를 받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료상담전화 080-888-5000)

각운스님은 “종단에서 추진하는 수익구조 다변화와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종단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상조회와의 ‘장례문화개선 캠페인’에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각, 증여, 임대 등 행위를 할 때 종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리인이 지적자산을 소멸·침해·멸실 시기거나 지적자산을 상실·훼손했다면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벌칙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입법예고안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26일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총무원 문화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불교의 사회적 역할 날로 증대”

손학규 민주당 대표,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손학규 대표가 당직 인선 후 첫 행보로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손학규 대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고, 뉴욕에서 사찰음식 시연 행사를 하는 등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먼저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면서 “손 대표께서 불교가 사회적 역할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는 단순히 불교를 알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템플스테이 사업과 2013년 세계종교지도자 한국포럼 등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최근 신의주에서 홍수가 발생한 직후 종단에서는 대북지원 물품을 북한에 남포항으로 보냈다”면서 “신계사 낙성 3주년을 맞아 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종단 차원의 대북 교류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예방에서 손학규 대표는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대표께서는 불교계의 대소사에 꼭 참석하는 등 인연이 깊다”면서 “좌우명인 ‘수처자주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서있는 곳이 모두 참된 곳이라는 중국 당나라 임제스님의 어록)’ 처럼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예방에는 교육원장 현응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 호법부장 상운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 강창일 의원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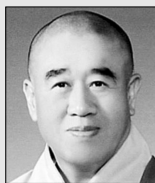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당직 인선 후 첫 행보로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불교인연’ 등에 대해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김형주 기자

본·말사 주지인사

(10월5일·7일 중무회의의 결과)



무아스님
청원 진불선원



현보스님
미국 샌프란시스코 불광사



원철스님
성남 동광사



일오스님
금산 평화사



현종스님
상주 호암사



효명스님
부산 해원정사



진우스님
서울 평정사



수증스님
서울 금화사



성안스님
장수 장안사



무어스님
서산 죽사



희정스님
문경 원정사



신행스님
포항 임허사



전철스님
광양 백운사



혜조스님
여수 한산사



천원스님
영남 법주사

2011 신춘문예 공모
11월15일~12월15일
www.ibulgyo.com

백양사 고불총림의 정상적인 운영과 문도화합을 위하여

- 우리는 의연스님과 무공스님의 ‘백양사 총림 지위에 관한 법규위원회’ 청구를 고불총림의 정상적인 운영과 총림설치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애중심의 발로라고 판단하며, 이를 통하여 백양사의 발전과 문도의 화합이 한층 더 발전하고 공평무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우리는 지난 10월 10일 백양사 임회에서 의연(백양사종회의원), 무공(중앙선거관리위원, 몽성선원임승)스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영원히 백양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결의는 종단의 상식에도 어긋나고, 종단의 근간인 종법 질서마저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력 후보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신성한 총림 임회를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악용하여 문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의연스님과 무공스님에 대한 평생 산문출입금지 조치 즉, 사실상 퇴속을 강요한 결정은 이유 여하를 떠나 백양사 발전을 위해 30년 이상 출가자로서 살아온 두 스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입니다. 이번 결의에 찬성한 법일, 현공, 만당, 보연스님 외 6명의 임회 위원 스님들은 하루 속히 이와 같은 결정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현하 백양사 문제를 원만하고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문도들이 참석하는 산중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교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격의 없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본사의 각 문도가 참여하는 산중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불기2554(2010)년 10월 14일

일수(백양사 선원수좌 대표), 원일(백양회 회장) 외 대중 일동

석장, 법선, 현광, 법운, 법룡, 무공, 진우, 진전, 덕룡, 무아, 현목, 법경, 범주, 법전, 법륜, 의연, 석연, 대연, 심연, 혜장, 법천, 범우, 혜광, 무학, 혜문, 법구, 혜오, 원오, 무연, 원철, 무선, 원종, 법신, 진오, 도성, 정연, 진우, 토진, 자성, 동참, 경진, 혜웅, 광전, 무상, 도일, 법산, 효진, 광진, 범공, 승진, 용진, 삼진, 원진, 화진, 경진, 우진, 동진, 응진